

다산포럼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내는 예술적 일상 작업을 목격하게 된다.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inside out project)라고 쓰인 카메라가 그려진 트랙은 즉석 촬영과 대형 출력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움직임은 ‘포토 아틀리에’다.

노장 감독과 예술가의 만남

갈수록 시스템 변화가 격렬해지는 21세기 초, 세대 차이 파장이 큰 대도시 중심에서 소외된 세상 한구석, 주로 노인들이 살아가는 마을은 기억을 담아내는 노스텔지어 전시장이기도 하다. 그 마을에서 오랜 세월 생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의 회고담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사진 작업은 (제이알의 말처럼) “세상은 캔버스고, 거리는 곧 팔레트”임을 말해 준다. 이들은 방방곡곡을 누비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얼굴 사진으로 마을 풍경을 즉각적으로 바꾸는 예술 놀이 공동 작업으로 일상에 즐거움을 선사한다.

거리에 나서면 여러 얼굴들을 만난다. 벽보와 현수막이 넘쳐 나는 선거철에는 더욱 그렇다. 누군가의 얼굴 이미지로 지역 살림꾼을 선택해야 하는 이 시기에 얼굴을 화두로 내건 독특한 다큐를 스크린으로 만날 기회가 생겼다. 얼굴과 거기에 스며든 기억, 그것을 사진 이미지로 거리에 전시하며 시골 마을을 떠도는 로드 다큐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Faces Places, 2017)이 바로 그 작품이다.

현대 영화의 골조를 튼 누벨바그 출신의 노장 감독 아녜스 바르다(Agnes Varda, 1928~)와 거리 예술의 혁명가 제이알(JR)이 함께 만든 이 작품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참여하는 흑백 사진 작업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들은 트럭을 타고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 마을을 다니며 그곳 사람들의 기억, 특히 빛바랜 사진을 보여 흘러나오는 과거 흔적을 거리 풍경으로 만들어

래도 가족 대대로 해 온 광부로서의 일상적 기억은 여전히 자부심 속에 피어난다. 그 결실로 황폐해진 건물들은 복원된 광부 시절 사진들로 포장된다. 특히 지난 할머니는 광부의 딸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며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최후의 저항자로 그 마을, 자신의 집에 남고 싶다는 숙제를 토로한다. 오랜 삶의 회로에라이 주름진 연륜으로 드러나는 그녀의 흑백 얼굴 사진, 그것으로 단장된 낡은 집은 멋진 박물관처럼 보인다. 집채만 한 자신의 얼굴 이미지로 두른 집 풍경을 보며 자닌은 감동에 젖어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런 그녀와 정겨운 포옹을 나누며 예술 놀이로 친구가 되는 멋진 우연의 힘을 보여 준다.

기록 예술의 매혹, 로드 다큐

노르망디에 있는 ‘항구’란 뜻을 가진 ‘르 아브르’(Le Havre)도 찾아간다. 바르다 감독은 당초 이곳을 여행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지만, 어떤 한물간 지역이기에 이곳도 시골 마을이라고 우기는 제이알의 주장을 융통성 있게 수용한다. 남성 노동 중심의 항구에서 바르다

감독은 “왜 여자들은 안 보이나요?”라고 묻는다. 그들의 아내나 보조적 일로 가려진 여성들을 찾아낸 바르다 감독은 여성 주체를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어 온 자신의 젠더 평등 기질을 발휘한다. 여성으로선 유일한 대형 트랙 운전기사인 한 여성과 다른 두 여성은 얼굴 중심이 아닌 전신 사진 작업에 흔쾌히 참여한다. 바다를 마주한 공간에 곤돌라로 7층 높이 대형 컨테이너들을 쌓아 사진을 불일 전시장 설치에 들어간다. 자신의 작품을 전신 사진의 심장 부위 빈 공간에 담은 이들은 예술로 바뀐 시점을 이렇게 토로한다. “자유로움을 느껴요!” “지배하는 느낌이예요. 제가 커지고 강해진 것 같아요!”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구순의 바르다 감독이 지팡이를 짚고 걸으며 손자 같은 거리 예술가 제이알과 동행하는 예술 놀이 여행. 그것은 차이의 공존으로 다양성의 미학을 전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야가 좁아진 바르다 감독은 제이알에게 장막 같은 선글라스를 벗어 보라고 수차례 요구하지만 그는 취향의 다양성론을 펼친다.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서도 서로의 기질 차이를 인정하며 동행하는 로드 다큐. 즐겨 보시길 권한다.

청춘특·톡



송수은
동강대학교 임상병리과 1년

장미와 효녀 심청, 매력 넘치는 곡성

말해 꽃구경보다 사람 구경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곡성 군민은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관람객들은 입장권을 구매하면 지역 화폐로 사용되는 ‘곡성 심청 상품권’ 2000원 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장 정문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배경이 됐던 옛 곡성역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문이 아닌 후문을 이용해 축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문에서는 곡성 지역의 특산물인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토란과 멜론, 사과 등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토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축제장은 유럽 최신 품종 장미 1004종으로 가득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장미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향긋한 꽃 내음을 맡으니 기분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문득 장미 꽃말이 궁금했습니다. 빨강 장미는 ‘불타는 사랑’, ‘사랑의 비밀’, ‘아름다움’입니다. 흰 장미는 ‘순수’, ‘순결’, ‘순진’, ‘매력’이고 노랑 장미는 ‘질투’, 분홍 장미는 ‘맹세’, ‘행복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미꽃으로 꾸며진 울타리와 미로는 ‘포토 존’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는 흑백 사진관이 있고 웨딩 콘셉트로 무료 사진 촬영이 가능한 세트장도 세 곳이나 마련돼 많은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다른 남녀 커플과 달리 저는 친구와 열렬하게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축제장은 화려한 장미꽃 외에도 즐길거리가 많았습니다. 기차마을에서는 큰 기적 소리와 함께 출발하는 증기 기관차와 기차길 위의 레일 바이크를 즐길 수 있었고 요술 란드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넘쳤습니다. 놀이기구가 마련된 드림 랜드에서는 바이킹, 관람차, 회전목마, 무지 익스프레스 등을 즐기려는 아이들, 마냥 즐거운 아이들 뒤로 자식들의 안전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애절한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제에는 공연이 빠질 수 없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장미꽃 만무이나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선보였는데 저는 ‘수와 진’이라는 남성 듀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

니다. ‘수와 진’은 매년 장미축제에 참여해 기차마을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며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모금액을 곡성군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들어보고 노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기부 전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매년 찾는 장미축제이지만 그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인지 평소에도 많은 분들에게 곡성 장미축제를 이야기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 장미축제에 30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합니다.

저는 제 고향 곡성이 자랑스럽습니다. 곡성은 장미축제 뿐 아니라 기차마을, 심청 한옥마을, 동약산 등의 여러 명소에 산과 물, 나무, 꽃만으로도 멋진 풍경을 그려내며 힐링이 되는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꼭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곡성에 놀러오세요. 2년 전 영화 ‘곡성(哭聲)’이 흥행하면서 ‘곡성(谷城)’지역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때문에 ‘무섭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한번만 방문해도 곡성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기고



김만호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세계 기록의 날, 광주·전남을 돌아본다

6월 1일에는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가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문을 열었다. 이 지식센터는 중국과 마카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소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 16건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2011년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일성록(日省錄)’, 2017년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16건의 세계 기록 유산은 아시아 1위이며, 세계에서는 4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보면, 기록이나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국가기록원(대전 본원) 산하에 대통령기록관(세종시), 서울기록관(성남),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 등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권역별로 기록관 분원을 두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록물을 관리해 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지방분권 시대에는 자치단체 차원의 기록물 관리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광주·전남의 기록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첫째, 광주에는 세계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있다.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기록물을 포함해, 가장 많은 5·18 관련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 수장 시설도 타 기관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앞으로 (재)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2020년)을 목표로 관련 기록물의 통합 관리 및 디지털 아카이브 체계 구축에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한다. 더하여 올해부터 전남도에서도 5·18 기념 사업이 시작된다. 이를 계기로 전남에 산재해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이 수집·정리될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둘째, 지난 4월 6일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개원하였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출연 기관으로 탄생한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 시대 및 근대 시기 기록 유산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 기관에 거는 지역민과 연구자들의 기대가 크다. 물론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성남), 한국국학진흥원(안동)과 함께 3대 국학 연구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원 증원 문제, 수장고를 비롯한 별도의 원사(院舍) 신축,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셋째,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록물 관리의 고도화를 위한 기관 신설에 대한 이야기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기록원의 분원은 성남·부산·대전 이렇게 세 곳에만 있다. 현재 우리 지역의 기록물은 대전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물론 광주에 국가기록원 광주기록정보센터가 있지만, 기록물 관리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원 유치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이화여대에 의뢰해 실시한 ‘권역별 분관 설치 용역’(2015년)에서 1순위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호남권(광주)이었는데, 이러한 용역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관심도는 낮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주소인가 하여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까지 세계 기록의 날을 맞아 기록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점검해 보았다. 지금으로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도 크다. 우리 지역의 기록물을 우리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시대가 충분히 도래했으니, 우리 지역의 기록과 기록물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社說

오늘 ‘세기의 담판’ 한반도 평화 이뤘 내기를

‘세기의 핵 담판’이 오늘 시작됐다. 전 세계의 이목은 당연히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쏠리고 있다. 이미 그제 싱가포르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샌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단독 회담을 갖는다. 6·12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한 모두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 이 회담의 결과에 따라 65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담의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평양 방문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등 여러 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식과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북·미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어느 누구보다 갈망해 온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담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 미

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북한이 요구해 온 ‘체제 보장·경제 해제’를 놓고 두 정상이 한 발짝씩 양보하여 한반도와 세계에 큰 선물을 안겨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이 생존과 번영을 위한 단 한번의 기회를 명시하고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려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 체제 보장을 진정성 있게 약속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원하는 전 세계인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두 지도자가 서로의 요구를 통 크게 주고받는 담대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는 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결단을 함으로써 종전선언으로 이어지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이뤘 내는 일대 전화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 ‘친환경 차 선도 도시’ 도약 좋은 기회다

정부가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 차 선도 도시’를 표방해 온 광주시로서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엇그제 ‘제1차 혁신성장 경제 장관회의’에서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그 골자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1만5000대 등 친환경 차 보급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의 누적 보급량은 2만 5593대, 수소차는 177대인데 이를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의 경우 중·단거리 승용차,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차와 대형 버스 위주로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되 내연 기관차와 가격 차이,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단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 시설도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전국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1만 기,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성장산업인 친환경 차 선도 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빛그린산단에 3000억 원을 투입해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중국 조이통자동차와 협약을 토대로 전기 시내버스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시와 현대자동차 등이 공동 투자하는 연산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건립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대구·울산·제주 등 다른 시도들도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차 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도시 간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돼 지방 의회가 구성된 지 올해로 27년째다. 지방 자치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지역 살림을 맡긴 지도 23년째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지방 자치가 잘 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이는 많지 않다. 중앙 정치 논리가 지방 선거를 관통하고 중앙당의 지나친 지방 선거 개입이 지방 자치에 쑤이 슬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끊임 없는 불법과 부정

난해 4월 구속됐고 보성군도 이윤부 군수가 같은 해 9월 수감됐다.

전국적인 상황도 비슷하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통합 청주시 이순환 전 시장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형이 확정돼 중도 하차했다.

전북에서는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박경철 익산시장과 이근식 김제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잇따라 물러났다. 경남에서는 함안·의령·함양 등 3개 지자체 단체장이

지방 선거

다.

실제로 민선 6기 출범 후 전체 단체장 245명 중 20% 이상인 50여 명이 금품 수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사법 처리됐다.

전남에서는 무안·해남·보성군 등 세 곳의 군수가 장기간 공백 상태다. 해남은 박철환 군수가 2016년 5월 구속돼 2년 이상 부군수 체제로 군정이 꾸러지고 있다. 해남에서만 세 명의 군수가 줄지어 버리리 노막, 산적한 현안 사업이 수년째 걸리고 있다. 무안군은 김철주 군수가 지

재판을 받고 있고 고성 군수는 군수직이 박탈된 상태다. 수도권에서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성추행 등으로 구리와 포천·양주·하남·파주시 등의 단체장 낙마가 이어졌다.

오는 13일은 지방 선거일이다. 후보가 누구인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투표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혈연·학연·지역에 얽매이지도 말아야 한다. 각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 및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한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장jki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 디 어 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